

지역 소식통

부안군의회,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건의안 채택

부안군의회는 지난 15일 제 385회 제2차 정례회 제차 본회의에서 이강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10월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부안군의회는 이에 따라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주관해왔던 2023 새만금 제2회 세계스카우트캠프의 준비와 진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건의안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부안군의회는 건의안에서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높여 오고 인권의 보편적 가치 보장 및 평등사회 실현에 기여해 온 여성가족부 폐지를 철회해 차별 없는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고 대규모 국제행사인 2023 세계캠프가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유관기관, 대학
수험능력시험 응원캠페인

부안군 교육청소과(김희순 과장)는 유관기관인 부안경찰서, 부안교육지원청과 함께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부안군 시험장인 부안고등학교와 부안여자고등학교 앞 정문에서 시험응시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2023년 대학수능능력시험 부안군 응시자는 총 317명으로 부안고등학교 155명, 부안여자고등학교에서 162명이 시험을 치렀다.

이날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며 청소년 유관기관(경찰서, 교육지원청) 및 사회단체, 학부모회는 수험생들을 위해 준비한 물품들을 전달했으며, 밝은 미소로 수험생과 청소년들에게 힘을 북돋아주었다.

군 관계자는 "시험에 응시하는 관내 수험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해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농업인 행복 증진 위해 최선”

정읍 농기센터, “정읍농업 경쟁력 강화 역량 집중”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가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인 대상 정례브리핑을 가졌다.

언론인 정례브리핑은 시의 주요 사업과 현안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브리핑은 전정기 소장이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와 현안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브리핑한 후 질의응답을 갖는 순으로 진행됐다.

전 소장은 5개 과의 주요 업무와 추진사업으로 가장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해 설명했다.

브리핑에서 전 소장은 코로나19 확산과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대두되고 있는 농촌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에는 베트남 람동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내년 초부터 외국인 인력을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전 소장은 이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쌀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과 수산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물 생산 및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이어 나갔다.



이와 함께 축산과 소관 '혁신 가축 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과 기술지원과 소관 '농기계 임대사업', 자원개발과 소관 '정읍 지황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전정기 소장은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직원이 역량을 집중해 정읍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도로정비 군부 최우수기관 선정

부안군, 도로노건 정비 · 도로변 우수방이 청소 등 높은 평가

부안군은 전북도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로정비 추진실적 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도로기능 유지와 교통안전 확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등을 위해 매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정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는 봄과 가을에 실시하는 현장점검과 도로정비 예산 · 장비 · 인력 투입 등 도로정비 세부지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우수기관을 결정하게 된다.

군은 관내 군도 · 농어촌도로 275개 노선 840km에 대해 도로보수원 등 20명의 인력과 장비 9대를 투입해 도로노건 정비, 교통시설물 정비, 도로포장, 차선도색, 도로변 제조작업 등을

실시했으며 특히 여름철 국지성 호우 대비 도로변 우수방이 청소로 시가지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한 점 등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택명 건설교통과장은 “2023 세계캠프 버리를 앞두고 부안을 찾는 5만여 참가자와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해 매력부안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겨울철을 맞아 제설차재 확보, 적사함 10개 노선 77개 설치, 모래주머니 8000포 배치, 결빙구간 위험안내 표지판 15개 설치 등 겨울철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활동대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정읍시, 농업인 1만2900여명에 총 358억원 지급... 농업인 소득 안정 기대

정읍시가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358억원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 · 농촌의 공익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20년 첫 시행에 올해 3년째를 맞고 있으며,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올해는 시기적으로 지난해보다 10일 가량 앞당겨 지급된다. 읍면동별 계좌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청 · 접수를 받아 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 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자격요건이 검증된 12,900여 명에 총 358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에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 대상이 전체 30%에 해당하는 4,000여 명(47억)이다. 또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대상이 70%에 해당하는 8,900여 명(311억)이다.

시는 지난해 구축한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신청 · 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

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

또 신청 · 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인 교육 · 홍보 강화와 함께 자격 검증과 이행점검 등에 힘쓸 것”이라며 “이번 공익직불금이 일손 부족과 이상기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만감류 적정 수확기 판별... 고품질 생산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는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지역 내 만감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수확기 판정 품질분석을 진행한다.

한라봉과 레드향 황금향 등 만감류 적정 수확기 판별 기술 보급을 통해 균일한 품질의 만감류를 생산 · 유통함으로써 소비자 신뢰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농업기술센터는 당도가 13브릭스 이상, 산도 1% 내외로 새콤달콤한 맛일 때 수확적기라고 안내하고 있다.

센터는 전문 분석 장비를 사용해 당도와 산 함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농가에 안내해 수확기를 판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품질분석을 희망하는 만감류 재배



농업인은 분석사료(열매)를 채취해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과 과수팀(☎539-6823)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만감류 재배 농가를 위한 수확기 품질분석뿐만 아니라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만감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고창축산 위기 극복하고 경쟁력 향상 위해 최선”

심덕섭 고창군수가 “사료값 폭등 등 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창축산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축산관련 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심덕섭 군수와 김사중 고창부안축협 조합장, 류기상 축산단체연합회장을 비롯해 7개 축산단체(한돈협회, 낙농협회, 양계협회, 채란인협회, 오리협회, 양봉협회, 흑염소협회) 대표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동절기 가축전염병 방역으로 긴장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격려하고, 내년도 축산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사료값 인상, 낙농제도개편, 꿀

벌 집단살종 등 위기에 직면한 축산업계를 위로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앞서 민선8기 고창군은 ‘스마트축산 ICT융복합 사업’을 공약사업에 포함시키고 악취개선을 비롯해 축산환경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꿔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실제 지난달 28일에는 신림 종돈사업장에서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사업 착수보고회’가 성공적으로 열리기도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문체부 장애인형 체육센터 공모 선정

고창군이 내년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공모에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국비 확보로 민선8기 심덕섭군의 ‘생활밀착형(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약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고창반대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신청했다.

이후 전북도, 문체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지난 16일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0억원 중 4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고창반대비 체육센터(가칭)’는 고창읍 율계리 사회복지시설 지구 내 들머리 일대다.

장애인평생체육센터와 연계 추진돼 연면적 9,85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관계 장애인이 언제라도 체육활동에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장애인평생체육센터 조성 등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장애인 자립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